

특별기고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은경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과 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 로스쿨 장기연수 과정을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이다.

나는 올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3년 임기를 마쳤다. 취임식 날, 인권은 ‘사랑’이란 소박한 의견을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임기를 끝냈으니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이 확실해질 법도 하건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풀기 어려운 게 ‘인권’이란 화두였다.

요사이 인권은 인간관과 세계관, 그리고 시대정신을 담은 그릇인 듯하다. 현대, 지금 유행하는 포스트모던은 상대주의를 옹호하고 합리성의 해체를 선포하는 사상이다. 그렇기에 종래의 ‘자연권’이란 용어 대신 ‘인권’이란 단어를 쓰는 것조차 시대정신과 무관치 않은 의도적인 선택인 거다. 최근 급부상한 ‘세계인권선언’도 논란의 소지를 이유로 ‘자연권’이란 기반을 배제했다. 다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토대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권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요즘 인권의 유래를 찾는 사람들은 더 이상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근거를 뒤척이지 않는다. 차라리 뭔가를 인간의 권리로 수용키로 한 사람들의 결의에서 인권의 근거를 찾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 듯싶다. 바로 법(法)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실제로 인류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국제적 규범(規範)으로 작동하는 원리로 ‘인권’이란 두 글자다. 어디 그뿐인가. 과거 공산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지향하던 정치적 이상들도 ‘인권’을 대안으로 삼기 시작했고, 정치적 유포피아가 무너진 자리에도 ‘인권’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인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치, 바로 이상향의 이미지로 각인됐고, 한편으로 소외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겐 더 나은 삶의 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인류의 희망을 상징했던 언어가 새로운 이데올로기, 바로 정치적 투쟁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인권에 대해 보다 주의 깊고 세밀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 **인권의 이상이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자리잡은 지금의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기만 한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인간의 타고난 권리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서로 공존이 가능치 않은 수많은 권리들이 난립하는 현상은 분명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공존 가능성의 문제는 종종 인권 인플레이션(human rights inflation)을 불러왔고, 인권 개념의 무분별한 확장은 수많은 요구들의 반목과 투쟁의 근거로도 작동하고 있다.

사실 ‘권리(rights)’라는 개념은 ‘옳다(right)’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인간의 권리는 숙명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는 인간관, 세계관과 맞부딪친다는 말이다. 현대, 철학, 종교, 사상의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권 개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특정 시대와 관련 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인권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의적, 독선적인 건 절대 금물이다. 역사는 이를 수도 없이 증명했다. 다만, 그렇다고 옳고 그름의 기준조차 지워버리려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동체 구성원의 변화에 반응하여 옳고 그름의 기준이 평화롭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연 ‘옳음’과 ‘그름’, 그리고 ‘옳인’의 영역이 어디인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표현하는 자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생각해 본다. 인권은 ‘사랑’이란 소박한 의견이 어찌면 투쟁 수단으로 전락한 이 시대 인권이란 개념을 인간 존엄을 코어로 한 규범의 우월적 개념으로 승화시킬 순 없는 건지 말이다. 누구든 아니다. ‘사랑’은 비이성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단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어느 누가 사랑이란 이유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단 말인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인권, 바로 인간의 권리를 말하기 전에 과연 인간다운 게 무엇인지부터 규정해야 한다. ‘사랑’의 창조적 생생함을 토대로 말이다. 인간이 당연히 갖춰야 할 근본적인 기준선마저 무너뜨리는 인권은 진실을 은폐한 선동수단일 뿐이다. 차제에 모든 논의의 출발선을 권리의 바로 전 단계인 인간으로, 한 걸음 앞으로 되돌려야 한다. 인간다움,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무척 절실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름’을 ‘옳음’으로 바꿔 보려는 인간의 노력도 결코 멈출 수 없다. 정치적 투쟁구호로 전락해버린 인권이란 프레임으로 이를 멈추게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멈춰지는 날, 인권(人權)이란 이름은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살라’는 수권(獸權)으로 바뀔지도 모르니까!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